



<6월 14일 인권활동가 촛불 행동>

◎ <직접 민주주의 광장 토론> 첫 번째 이야기 : “비폭력과 직접 민주주의”

촛불로 저항하는 국민들의 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. 국가권력은 이를 억압하고 차단하고 급기야 컨테이너 차단벽까지 설치하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. 한편 촛불 안/밖에서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직접행동에 대한 폭력/비폭력 논쟁이 뜨겁습니다.

“민주주의는 차벽을 넘는다”

6월 10일 -11일 촛불에 참여한 시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의 스티로폼 쌓기는 폭력/비폭력 논쟁의 거대한 활화산과도 같았습니다.

광장민주주의가 꿈틀대고 촛불 공간에서 인권활동가들은 우리의 민주주의 완성하는 과정을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. 많은 분들의 참여와 열띤 토론을 기대합니다.

- 이야기거리 : 비폭력과 직접 민주주의
- 언제 : 6월 14일 저녁 9시
- 어디서 : 서울시청광장
- 이야기 손님 : 홍세화(한겨레 기획위원)
- 사회 : 이원재(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)
- 토론 진행 방식 : 이야기 손님이 주제에 대한 발제를 한 후 시민들의 질문과 자유토론으로 이어집니다.

◎ 공권력 대응 : "근조 경찰폭력" 차벽 장의차 만들기

- 광화문 차벽 중 한 대 장의차로
- 검은색 페인트(수성!)로 전경차를 칠하고 장례식에 사용한 꽃과 리본을 이용해서 장식한다.
- ‘근조 폭력경찰’ 을 스티로폼에 써서 전경차에 붙인다.

(** 공권력 대응은 경찰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참고해 주세요.)

<2차 집담회 합시다>

◎ 언제 어디서 : 6월 18일 3시 / 노들야학

◎ 이야기거리

① 6. 10일 직접행동 평가

② 인권활동가들 촛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?(기존의 활동을 정비하고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준비)

- 집시법 대응 투쟁 : 경과보고와 활동 제안서(공감대 준비) / 의제를 확대 시키고(전의경 문제, 진압수칙 국제기준 등) 시위 현장 감시 뿐 아니라 헌법 소원 등 촛불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논의

- 직접 민주주의 : 헌법 제1조 길거리 특강과 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내용을 전달하고 대중들과 토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활동 계획



2008년 6월 15일 오후 12:22

안녕하세요.

미디어문화행동의 조동원이라고 합니다.

어제 밤(토, 14)에 있었던, "비 폭력과 직접 민주주의" - 광장 토론에 대한 거진 녹취입니다:

<http://blog.jinbo.net/mediactive?pid=97>